

元老科學技術者의 証言

10

— 發明獎勵 위해 特許業務에 專念 —



李 采 鎬 先生篇

◎ 略 歷 ◎

- 1905. 6. 16 平安南道 安州 出生
- 現住所 : 종로구 동숭동 199의 16 (전화 : 762-3757)
- 1929 日本大阪商工 機械科卒
- 1945 軍政庁 鉦工局 高문
- 1946 特許院長, 機械學會長
- 1949 商工部 特許局長
- 1952 商工部 工業局長
- 1953 國立工業研究所長, 辨理士會長
- 1964 韓國工業技術센터 理事長
學術院會員(機械工學 · 現在)
- 1966 韓美技術協力會 副會長
仁德學院理事
- 1969 特許法律事務所 開所(現在)
- 賞 : 靑條素星勳章, 銀塔產業勳章
- 著書 : 特許技術의 動態

되어 있어 그 重要性이 비할데 없이 크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工業처럼 비싼 外製기계를 사들여다 기술자 몇명 붙여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깎고 다듬을 줄 아는 독특한 기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긴시간과 막대한 投資로 쌓아올려진 단계적 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

學校, 工場 모두가 이러한 構造成立에 노력하여야 하겠고 政策담당자 역시 予算이나 投入, 算出만을 따지기 전에 宗教의 신념에 가까운 信念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야 겠다.

기계공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계공학에만 50여년 전념해온 내가 오로지 이러한 신념 하나로 버텨온 지난날을 외롭게 살아왔고 지금도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학문 자체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분야에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한예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기계공학을 시작 한것이 무슨 사명감에서나 다른뜻이 있어서 한것은 아니다.

◇ 우습게 결정된 一生 ◇

◇ 機械工學은 의로운 學問 ◇

政府가 推進하는 重化學工業化시책의 핵심은 機械工業, 더우기 이분야는 防衛産業과도 直結

내가 中學校를 마칠 무렵은 3·1운동이 지나지 얼마 되지 않아 民族의식이 유난히도 높았고 民族自立을 위해서 物產獎勵운동이 한창이던 때

였다. 아마도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러한 社會的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것 같다.

당시 나는 3·1운동때까지 다니던 漢文書堂을 그만두고 머리를 깎은후 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했다. 學校生活 3개월이 되었을때 定州五山學校 1학년 학생모집이 있었다. 五山學校라면 曹晩植선생으로 너무나 유명한 학교였으며 3·1운동때문에 校舎는 불타고 선생들은 淸州 등 국외로 망명을 떠난 상태였다.

보통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漢文, 算數, 日本語 세가지 入學시험 가운데 자신있는 것은 漢文뿐이었으나 다행히 合格되어 中學生이 되었다. 이때는 3·1운동 뒤끝이라 개인 이야기는 전혀 없이 민족이야기뿐이었고 政治문제 대신 物産奨勵운동이 적극화했다.

曹晩植校長선생도 말총모자에 미디 두루마기를 입고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다닐 만큼 이 운동은 철저했다.

이런 가운데 졸업이 가까워 오자 工業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 공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할지 전연 알수도 없었고 다만 그당시 유일한 기계(?)인 汽車, 飛行機를 만드는 학교가 좋을것 같아 기계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장래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전공을 결정했다.

기계과를 결정하고 나니 어떤학교에 가느냐도 문제였다. 서울에 工業학교가 있기는 했으나 機械科가 없고 美國은 가기 어려우니, 日本으로 가야겠는데 학문研究에 적합했던 東京에 가느니 보다 당시 工業으로 유명했던 大阪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내일생은 우습게 결정되어 버렸다.

◇ 日本에서의 生活 ◇

지금의 大阪大學 前身인 大阪帝國大學은 商科, 理科, 工科로 구성되었었는데 내가 입학한 大阪工高는 바로 大阪帝大 工科的 前身이었다. 그때만해도 大阪에는 外國語學校 등 官立學校는 3개밖에 없었고 大阪工高는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학교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학교에 진학한 나는 공부에만 전념

할 수가 없었다. 인구도 적고 학생도 적었던 이 도시에 유난히도 우리나라 사람은 많았으며 특히 濟州島출신이 많았는데 木浦에 가는것 보다는 대판에 가는것이 쉬운 그때 형편으로는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들의 생활은 人間最下였다. 美國흑인 사회보다도 못한 대접과 환경에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이어 나갔다. 이런 韓人社會에서 공부하자니 우리나라 사람의 장래만 생각될뿐 공부와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더우기 1학년말이 되어서 學生會會長이 되자 大阪 韓人社會의 名士가 되어버려 이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관계하게 되었다.

지금도 종교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당시 韓人들의 집회라야 教會밖에는 없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관계 하기 시작하여 說教도 했고 목사나 선교사 들과도 무척 친해졌다. 韓人이 다니는 교회라면 모두 쫓아 다니다 보니 大阪 시내 구석 구석을 다녔고 공부 보다는 일종의 韓人을 위한 社會運動이 주업무가 되었다. 이런 생활을 3년 계속하고 나니(물론 3년간 학생회장직을 맡았다) 어느듯 졸업때가 되었고 학교성적 역시 신통하지도 않았다.

◇ 歸國했다가 再渡日 ◇

3학년이 되어 實習을 나가게 되었는데 韓人이었던 나는 龍山鐵道局으로 실습배정을 받았다. 기계라야 철로차량뿐이었고 農機械가 좀 있는 정도였으며 비행기를 생각도 해보았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나에게는 龍山鐵道局이 아마도 가장 알맞는 실습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뒤 졸업논문도 鐵道車輛이었고 또 이 실습장에서 만난 김노수씨와 그후 機械學會를 10여년 이끌어 간 因緣을 맺게되어 龍山實習은 나에게 여러가지 意味가 컸다. 그뿐인가—.

졸업해도 갈곳이라고는 鐵道系統 뿐이었는데 당시 五山學校는 官吏가 된다는 것을 일종의 수치로 알도록 교육했다. 관리는 곧 朝鮮총독부에 들어가는 것을 뜻했으므로 이런 사고방식은 지극히 당연했으며 따라서 처음 理想과는 乘離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실습중 알게된 技士長이 大阪學校선배라서 이러한 나의 고충을 相議했다.

기사장은 日本人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조그마한 간격도 없이 지내는 형편이어서 이러한 나의 進路를 상의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졸업후 故國에 오면 이곳밖에 울곳이 없는데 어찌면 좋겠느냐」는 나의 질문을 받은 그는 별걸개 충혈된 눈으로 쏘아보았다. 技士長의 위압에 눌러 말도 채 끝내지 못하고 어물쩍하고 있는데 “나쁜놈” 하더니 “大阪까지가서 공부한 사람이 겨우 철도국에나 올려고 하느냐” 판생각 말고 일본에서 더 공부하고 활동도 거기서 하라”는 호통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學校先生이나 하라는 대답이었으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좁고 단순한 생각이 무척이나 안스러워 보였던것 같다. 그뿐 아니라 당시 龍山鐵道局에는 1년선배 한분이 있었는데 日本人들의 賤待가 심했고 또 견뎌낼 자신도 없었다.

집안의 말아들인 내가 이것 저것 생각지 않고 다시 日本에 들어간 것도 이분의 적극적인 권유가 크게 작용한것 같다.

실習을 마치고 나니 좀 不景氣였기는 해도 大阪에서의 취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賤待가 너무 심했고 또 日本人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것 저것 궁리해 보았다.

窮則通이랄까? 기술을 이용해 발명을 促進해보자는 發明獎勵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特許事務所를 차려야 하겠기에 大阪工高 취업담당교사에게 特許事務所 취직을 요청했더니 별놈(?) 다보겠다는듯 쾌히 승낙했다. 이 學校졸업생으로 特許事務所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직원이 300명이나 되는 日本최대의 아사무라特許事務所에 취직이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런 간섭없이 자유스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생활이 얼마 계속되자 辦理士 자격이 必須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技術과 法律을 共有해야할 辦理士교육기관이 大阪에는 없어 特許局 總務部長인 요시하라氏가 강의를 하고 있던 東京 中央大學校 法學部에서 강의를

받았다. 1년 가까이 계속된 강의끝에 辦理士 시험에 합격, 귀국한 것은 얼마 뒤였다.

◇ 特許業務에 專念 ◇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辦理士라는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귀국한 나는 조국을 위하는 길이 이것뿐이라고 생각, 光化門 한복판에 「朝鮮特許代理局」간판을 내걸고 特許事務所를 열었다.

다 알다시피 특허제도는 대단히 복잡해 법률과 기술動態나 기술生態를 동시에 취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行政이나 法律만으로는 잘되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 特許庁은 공무원社會에서 좌천장소(?) 비듯이 인식되어 있어 일은 어려워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잘가려 하지도 않는 현실이다. 특허의 어려움이란 상상의 정도를 넘어 50년가까이 이업무에 종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美國같은 곳에서는 공무원制度와는 달리 자기업체나 研究所의 우수한 人力을 높은 賃金으로 끌어들이어 각방면의 Expert만 몰아 심사도 정확하며 처리 또한 빠르다.

그러나 특허 内部的 복잡한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던 그때의 나는 단순히 大阪에서 하던 社會運動의 變型을 서울에서 延長할 셈으로 특허업무에 전념했다.

그러나 당시 변리사라는 職種이 좀 特異하여 識者層에서는 특별대우를 해주어 發明學會理事, 帝國發明協會 朝鮮發明協會支部(商工會議所內) 任員, 開明俱樂部 理事까지 되었고 新聞社에서도 특별취급해주어 一躍 名士가 되었으며 社會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활동은 용이했다.

이러한 나의 생활은 解放과 더불어 끝났다.

◇ 韓國機械技術協會 結成 ◇

機械學界발전에 盡力, 特許에만 專念해오던 나는 解放으로 다시 機械學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解放이 되자 기계공업을 하겠다고 日本, 滿州 등지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300여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가운데 자리라도 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자연 내사무실이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結集, 韓國機械技術協會를 결성하였는데 당시 이協會는 會員數에서 國內

最大였으며 후에 기계학회의 母體가 되었다. 龍山 실습시절 알게된 김노수氏가 副會長을 맡고 내가 會長을 맡아 10여년간 이끌어오는 동안 내 個人生活은 엉망이 되었으나 機械學會는 제법 活氣를 띄었고 學校, 工場 어디나 會長의 말이 라면 100% 받아 들여졌다.

말이 學校요 工場이지 지금생각하면 실로 보잘것 없었다.

간단한 농기계나 농기구製作단계에서 滿州事變이 발생한후 鐵道局工作廠, 龍山工作廠, 大韓重工業, 大韓重機, 安東機械, 勝利機械등이 생겨 기계공업이 겨우 시작됐다. 해방할 즈음 日本의 니이가타(新瀉)등 28개 기계공장을 우리나라에 설치하여 기계공업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으나 6·25사변으로 그나마 모두 없어져 완전갯더미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해방이 되어 特許事務所 간판을 떼고 機械學과 인연을 다시 맺게 되는데는 軍政廳의 덕택도 있었다. 鉦工局 生産二課長이 되어 우리나라 기계공업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했고 日帝가 남기고간 각종 기계시설의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했다. 釜山피난시절에는 工業局長이 되어 各種 工場을 再建하는데 힘쓰기도 했다. 이때는 大邱 釜山 馬山등지에 공장이 조금 있었을 뿐이었으며 지금은 내노라 하는 第一製糖 이나 력기化學등이 모두 이때 設立된 것들이다.

理論만으로 알아오던 기계공업을 실제 일선에서 계획 집중 해보니 역시 이분야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특히 科學技術의 發展에는 社會的, 法的인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도 절감했다.

지금은 국내공업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학교에도 수십개의 學科가 있으며 學生數도 많고 할일도 많으며 의욕들도 있어 우리 水準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살펴 할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기계공학은 대단히 어려운 연구분야로 최근 예야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것 같은데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것이 先輩나 政策家들의 임무인것 같다. 특히 이분야는 다른 어느

것보다 基礎로 宣傳이나 效果面에 너무 치우치는 듯한 인상이 짙다. 한마디로 條件은 여러가지 구비되어 있으나 社會적여건이 아직 이분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의 중공업정책으로 좀 나아질듯 싶지만 핵심분야는 아직도 어려운게 솔직한 현실이다. 4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 重點育成하려는 모양인데 이는 必然的의결과이며 한계에 다달은 경공업 중심에서 탈피하려면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다. 西歐나 日本등은 이미 이러한 特性을 인식하여 나름대로의 發展을 이룩했으며 뒤늦게나마 이 隊列에 뛰어든 우리도 國際技能競技大會등에서 거두는 성적등을 보아서는 멀지않은 장래에 훌륭한 機能工業國家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아직도 特許의 重要性 인식못해 ◇

工業局長 在任 1년쯤 되자 日本이 남기고간 特許權문제가 크게 논란되기 시작했다.

特許權은 일종의 自國固有 權利로서 朝鮮總督府시절의 特許權이 해방이 되어도 韓國에서 그대로 權利를 행사하게 되자 남의 權利에 따르는 각종문제가 발생했다. 戰後 이문제를 처리코자 日本에서 사람이 오고 正式으로 문제가提起되어 特許局長이 되어 이문제해결에 臨하게 되었다. 이후 7년간 同職에 있다가 다시 安東赫氏 후임으로 工業研究所長이 되었으며 10년간 奉職했다.

내분야 이외에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기술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辨理士로 官吏로 研究所로 전전한 셈이 되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技術의 가장 중요한것은 技術과 管理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지금도 가장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도 特許의 重要性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내가 특허국을 만들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나라에 害가 될터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다. 그래서 辨理士 업무에서 손을 떼고 特許研究所를 새로이 열어 特許制度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려한다.